

전남 동부권

여수 U-Bike로 '성공 박람회'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7월부터 16개소서 무인 대여·반납

2012년 세계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수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여수시의원, 자문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U-Bike 공영 자전거시스템 구축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U-bike 공영 자전거시스템 구축의 세부사항인 ▲공영자전거 시제품 점검 ▲자전거 스테이션의 설치상황 ▲자전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추진내용·보안 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U-Bike 공영자전거시스템이 구축되면 16개의 스테이션에 WiFi(무선 인터넷) 존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과 관제프로그램을 개발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서 무인으로 공영자전거를 대여·반납할 수 있게 된다.

스테이션은 여수시청을 중심으로 선소, 소호 요트경기장 등을 잇는 생활·레저용 코스와 여수역, 박람회장, 천혜의 생태 관광지 오동도, 해양공원을 잇는 관광용 코스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될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모든 스테이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에는 스마트단말기가 설치돼 이동거리, 대여시간, 운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개발돼 여수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안내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시 임병영 정보통신과장은 "디지털 관광콘텐츠,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위치정보를 융합한 3차원 공간정보 웹 서비스를 실현해 편리하고 안전한 박람회 개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개나리 꽃그늘아래 '천사들의 합창'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내 자연생태 학습체험장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종종걸음으로 걷고 있다. 물푸레나무과 낙엽관목인 개나리는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봄꽃의 대명사이다. <구례군 제공>

"로켓 만들고 유채꽃길 걷고..."

고흥군 9~17일 '우주과학 생태체험전'

고흥군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고흥만 항공센터(유채꽃 단지 일원)에서 '고흥 우주과학 생태체험전'을 개최한다.

고흥군 관내 과학교사의 모임인 '고흥 하늘사랑 교사회'(회장 신여경)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 에어로켓, 로켓

컴퓨터 만들기 등 다채로운 2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유채꽃 단지 일원에서는 가족이나 단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코스, 소달구지 체험, 황토길 걷기, 바다체험 등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항공센터에서 유채단지를 잇는 6km의 방수제변에 조성된 유채꽃과 벚꽃 길은 연인, 가족 등과 함께 유

순천만 천문대 야간 관측 연장 운영

순천만 천문대는 야간 별자리 관측이 계절에 따라 일몰 시간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측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순천만 천문대는 "자녀 7시부터 9시까지 운영 중인 야간 별자리

관측이 계절에 따라 일몰 시간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측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4월 별자리 관측시간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이다.

채 전동열차를 타고 산책을 하며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 교사모임인 '고흥 하늘사랑교사회'는 우주개발의 전초기지인 고흥 이미지에 맞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다양한 과학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많은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전국 최고의 우주과학 시설(우주과학관, 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천문과학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여수 공공토지 지적 정리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정에서 마을 안길과 농로 등에 편입된 여수지역 토지에 대한 지적(地籍)정리가 마무리됐다.

여수시는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정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3개 마을(돌산 금복리·남면 유송리·돌산 율리리)을 선정하고 지난 2009년 착수해 최근 완료했다.

시는 12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혜택 등을 알리고 찾아가는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돌산읍, 남면 등 도서지역 사업대상 토지 381필지를 처리했다.

또한 시는 ▲지적 측량비 6000만원 ▲등기비 5700만원 ▲농지전용 부담비용 1억4000만원 등 총 2억6000여 만원의 비용을 무료로 집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 중부민원총장 김성준 담당은 "실제 도로가 있으나 지적 도면상 없어 토지이용에 제약받았던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광양 9번째 기업공원 준공

광양지역에 9번째 기업 단체공원이 조성됐다.

동광양 청년회소(회장 김현군)는 5일 광양시 마동 송보 6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민 체육공원' 준공식을 겸한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시민체육공원에는 각종 체육 단련 시설과 급수 등 13종 1060주의 수목이 식재됐다. 이번 'JC공원'은 광양시가 기반조성비와 체력단련시설 등 6000만원을 지원하고, 동광양 청년회소에서 3500만원을 투자했다.

김현군 회장은 "동광양 청년회의 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 이번 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오지 학생들 '클래식 수학여행'

한화그룹, 여수 초등생 초청 문화체험

한화그룹의 문화나눔 행사가 여수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한화는 환경상 문화혜택의 기회가 거의 없는 오지 분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월 중 1박2일 일정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매년 문화나눔 행사에 여수 지역 초등학생을

초청해 참가시키고 있다.

6~7일 이틀간 진행되는 올해 '클래식 수학여행'은 6일 저녁 예술의전당에서 국내 최고·최대 음악축제의 '교향악 축제'를 관람하게 된다.

7일은 63빌딩의 수족관과 왁스뮤지엄을 둘러보고, 국립과천과학관을 견학한다.

또한 두 번째 행사는 16~17일 1박2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의 150여 명의 어린이들과 인솔교사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북

봄 내음 그윽... 두근두근 꽃잔치

진해·새만금 등 대형 축제 잇따라

'진해 군향제'(4월 1~10일)를 시작으로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가 잇따라 펼쳐져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제 모악산과 남원 요천강변 벚꽃축제가 대표적이다.

◇제4회 모악산 벚꽃축제 = '모악산 벚꽃잔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금산사 상가 옆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벚꽃잔치는 한국예총 김제지회(지회장 김영근) 주관의 '제11회 모악문화제'를 비롯해 '제5회 김제시 읍면동 농악잔치 한마당', 한국예총진흥연구원 김제시지부 '국악 대항연', 부채 그리기, 사람의 가슴 써주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와 체험행사, 홍보전시행사 등으로 특색을 이룰 전망이다. 또 '지평선 한우' 부스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야생화 전시장도 운영된다.

◇제4회 요천강변 벚꽃축제 (9~10일) = 9~10일 이틀간 남원 관향루원 요천강변 십수정에

서 열린다. 6km에 걸친 요천변에는 1300여 그루의 벚나무가 화려한 봄꽃을 피운다.

이번 축제는 벚꽃 초·중등생 그리기대회를 비롯해 디지털사진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천연비누·허브 초콜릿 만들기 체험, 바닷개비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과 시민 참여형행사로 치러진다.

◇군산 새만금 축제(8~24일) = 군산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전군가도'(전주~군산간 26번도로)에서 '군산 벚꽃예술제'를 열아왔으나, 올해부터는 봄에 열리는 각종 축제를 '새만금축제' 하나로 통합했다.

군산 벚꽃축제는 진해의 군향제와 쌍벽을 이뤘다. 새만금 벚꽃 아가씨 선발대회(9일)와 사진촬영대회, 시조경쟁대회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진안 마이산을 비롯해 정읍천, 전주 동물원 등이 벚꽃 명소로 손꼽힌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박성태기자 hnews@

전북 LED 식물산업 '날개'

'농생명 기술개발' 국가과제 선정...5년간 325억 지원

전북도의 LED 식물공장 산업이 날개를 달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LED 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325억원(국비 250억·지방비 50억·민자 25억원)을 투입, 추진한다. LED 식물공장은 태양광 대신 LED를 광원으로 활용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연중 농산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에는 LED 농생명 융합산업 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 LED융합기술지원센터와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본원, 원광대,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주)현대그린푸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식물공장 보급을 위한 대규모 플랜트 산업화 기술개발과 미래형 모델을 개발해 수출을 통한 기업 경쟁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 재배용 광원 시스템 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을 하게 돼 전북도가 전국 유일의 LED 농생명 융합산업의 메카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LED를 광원으로 이용하는 식물산업은 미래의 '블루 오션'이다.

도는 전북LED융합기술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연차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 개발된 고부가가치 식물생장용 LED 및 식물공장내 작물생산 관련 원천기술을 일반 농가에 보급해 손쉽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수출형 모델을 개발해 수출을 통한 기업 육성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2010~2012년)는 ▲농생명

산업화를 위한 LED 칩 개발 ▲파일럿(Pilot) LED 식물공장 구축 작물 생산 등을 통해 농생명 LED 융합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2013~2014년)는 농생명 관련 친환경 인증을 첨단 장비 구축과 상용화를 위한 R&D 품목 개발 및 식물공장 운영기술을 확보, 농생명 LED 융합기술을 특화시킨다.

3단계(2015년)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용 식물공장 보급 ▲식물공장 플랜트 수출 기반확보 등 농생명 LED 융합 기술 산업화를 완료한다. /전북취재본부=강형수기자 knews@



서해안 김 소득 42% 줄어

업체 황백화 피해 936만속 117억원 그쳐

올해 전북 서해안의 김 생산소득이 '업체 황백화(퇴색) 현상' 여파 등으로 지난해보다 42% 급감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김 생산량은 936만속, 117억 원의 소득에 그

쳐 지난해 281억 원보다 42% 줄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군산 고군산해역 김 양식장에서 시작된 '업체 황백화 현상'이 부안 변산과 위도해역으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본 데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서 별 피해없이 김이 대량생산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소득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 생산량이 다소 줄면서 어민들의 소득도 급감했다"며 "황백화 피해 어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단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30일부터 토요일문화강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관장 김진수)은 오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주 동안 '제9회 토요 전통 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수강 인원은 80명이며, 교육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문의(063-290-6773)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nyu0418@

문화의 정체성과 활용 ▲불교를 통한 백제와 일본의 문화교류 ▲한국의 세계 불교유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 인원은 80명이며, 교육 참가비는 1만원이다. 문의(063-290-6773)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nyu0418@

남원농기센터 '강소농' 100 농가 육성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는 작은 경영규모지만 고객 가치 창출 및 고부가가치 확보 등의 혁신혁명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강소농' 100 농가 육성에 나선다.

센터는 기업성과 취미농, 부업농을 제외한 성장의욕이 높은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까지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센터는 지도역량을 보강해 강소농 매니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 지도사가 1품목씩 책임지고, 작목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술능력을 보유토록 해 품목별 컨설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보건소 정신질환 편견 해소 캠페인

김제시 보건소(소장 소장 이병철) 정신보건센터는 5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터미널 부근 거리에서 정신질환 예방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4'가 두 번 겹친 4월 4일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지우고, 편견을

교정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으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됐다.

박종문 정신과장은 "정신건강 교육 등 활발한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 '장수 웰빙타운'에 휴게시설 조성

순창군은 풍산면 '건강장수 웰빙타운'에 휴식공간 마련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시설과 건강산책로,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웰빙타운은 노인전문 요양원, 노인 복지센터, 풍산 국민대주

택 등을 두루 갖춰 주거·복지·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군은 4억원을 들여 오는 8월 준공목표로 594㎡ 규모의 인조잔디 포장 게이트볼장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